

사타 이네코(佐多稻子)의 『맨발의 소녀(素足の娘)』論

-에로틱한 갈망의 함축성 그 자유-

朴愛淑*

目次

1. 머리말
2. 작품성립의 시대적 배경
3. 모모요(桃代)-새로운 소녀상
4. 진보적 성해방 의식
5. 에로틱한 갈망의 함축성
6. 맺음말

1. 머리말

『맨발의 소녀(素足の娘)』(1940.3)는 쇼와 10년대 사타 이네코(佐多稻子1904-1998)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신조사(新潮社)에서 간행된 최초의 단행본으로 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를 맞아, 조선소가 확장되어 가는 오우(相生)를 배경으로 가난한 소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쇼와 10년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사상탄압이 강화되면서 진보적인 문학자가 대량 검거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1941년 『맨발의 소녀』 발표 이듬해부터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암흑기가 시작되면서 좌익운동가는 물론 서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되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작품성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맨발의 소녀』가 중일전쟁 중 전시체제에 대한 작가의 저항을 피력한 작품으로 보는 까닭이기도 하다.¹⁾

* 상명대 대학원, 근대문화 전공

1) 平野謙(1955), 解説『素足の娘』, 角川文庫, p.224

草子和子(1968), 『素足の娘 <佐多稻子>』『國文學』4月号, 學燈社, p.63

久保田正文(1968), 解説『現代文學体系39佐多稻子・林芙美子集』, 筑摩書房, p.528

小林裕子(1981), 『『素足の娘』・『樹々新緑』-モラルの二重性』『体験と時間』, 翰林書房, pp.66-81

그러나 작가의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작품이면에 내재된 도전적이며 에로틱한 소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맨발의 소녀』는 허구성 짙은 자전소설로서 주인공 모모요(桃代)의 색다른 매력, 소년의 성장기가 아닌 소녀의 성장기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작가의 문학적 독창성이 존재한다. 모모요는 소녀에서 여자로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홀로 성의식에 눈떠갔고, 성숙된 인간의 가치관을 확립해간다. 거기에서 작가는 여자의 성이 억압될 성질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여성해방 사상을 은연중에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소녀의 생활은 당시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당했던 민초들의 자유에의 갈망을 풀어주기에도 충분했다. 이것은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7만부라는 기록이 여실히 대변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맨발의 소녀』를 작가의 성에 대한 진보적 시각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입장에서 이미지화된 일종의 교양소설²⁾로 보고, 홀로 성의식에 눈떠가는 소녀를 통해 에로틱한 갈망의 함축성 이면의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과 자유로운 인간의 내적정신의 심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작품성립의 시대적 배경

『맨발의 소녀』는 작가나이 36세, 여자로서 가장 한창인 나이에 집필한 작품이다. 문학자로서 입바른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작가는 자기인생의 원점을 소녀시대를 통해 찾고 싶었다.³⁾ 무라가미 류(村上 龍)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녀가 설정한 「계절과 시간(季節と時)」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놓칠 수 없다. 순수했던 청춘시절 인간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별개인 것이다. 작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계절을 감각적 오관으로 느끼며,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사타 이네코는 1944년 나치 정권시대에 체포, 투옥되는 등 전후 독일문학을 대표했던 루이제 린저(Luise Rinser)와의 對談⁴⁾에서 자신은 전쟁이 점점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웃

長谷川啓(1992), 「『素足の娘』の虚構空間-桃代にみる性のめざめ」『佐多稻子論』,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110

2) 성장소설(Bildungsroman)은 독일에서 발전된 장르로 알려져 있다. 독일어로 빌둥(Bildung)은 과거에는 교양소설로 번역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성장소설로도 불리고 있다. 교양소설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03년 모르겐 슈테른(Kahl Morgenstem)에 의해서다. 그에 의해 규정된 교양소설이란 개념은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나는『빌헬름 마이스터』의 유포를 이루는 소설들을 교양소설이라고 부르고 싶다. 괴테의 작품은 인간의 완성단계를 상이한 국면과 모습, 상이한 삶의 시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고익환(1997), 『발전 및 교양소설의 연구』 『독일어문학 제7집』, pp.167-8)

3) 板垣直子(昭和46年), 『明治大正昭和の女流文學』, 櫻楓社, p. 198

4) 루이제 린저는 자신이 최초의 작품은 시적인 것으로 소녀시대만을 쓴 것이고, 정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히틀러는 나치스적이어서 않다는 이유로 발매금지를 내렸다고 한다. (佐多稻子・Luise

사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쟁반대를 외칠 수가 없었다고 당시 프로문학자로서의 괴로움을 밝히고 있다. 자신이 전쟁반대를 외친다면 전쟁에 나가 죽은 이웃집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신도 군국주의에 굴복해 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문화라는 것이 더 이상 지식인층, 상류층의 것이 아니라, 장래의 문화는 일하는 자의 문화가 돼야한다는 프로문학 이론에 힘입어, 계급적 사상을 수용하고 프로 문학자로 출발했던 그녀가 전후에는 『허위(虛偽)』(1948.6), 『포말의 기록(泡沫の記録)』(1948.9)등에서 자기비판을 가하며 척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하튼 문학과 정치의 관계 속에서 『맨발의 소녀』는 발매금지를 피할 수 있었다. 전쟁 체제 하에서는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휴머니즘적인 것까지도 정치는 억압을 하였다.

자신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것 그것도 정치는 압박한다는 의미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것을 생각해냈어요. - (중략) - 소녀의 성장을 쓴 내용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읽혔어요. 전쟁 중 인데도 다행히 발매금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自分の体制を批判するものだけを弾壓するのではなく、非常に人間的なものそのものも政治は壓迫するという意味で。そのことで、私、自分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中略)-少女の成長を書いた内容です。それは大変讀まれたんです。戦争中なのに。それは幸にも發禁にはならなかったんです。)5)

다행히 발매금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작가는 밝히고 있는데, 4행씩 두 번에 걸쳐 삭제당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집필이 자유롭지 못한 시국적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모요와 같은 소녀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일본은 15년 전쟁을 치르면서 서민과 女性の 노동력을 철저히 이용했다. 여자의 활용은 전쟁의 비교적 초기부터 편성되어 단지 전쟁도구로서 인적자원이라는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였다. 여성은 남자대신 군수물자 생산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인력 재생산6)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이용되었다. 쇼와 15년(1940년)부터 국민생활은 정부통제 하로 들어갔고7), 쇼와 16년(1941) 1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8)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

Rinser(1981),「女として生きること書くこと」『スバル』, 進英社, 7月号, p.221)
5) 위의 책, p.219
6) 戦争遂行の人的資源確保のため、女性は家庭にとどまって子供をたくさん生み、報國せよという、「生めよふやせよ」の政策という。早く結婚して5人ぐらいの子をうむべしという政策。
7) 1940년 설탕과 성냥, 육아용 밀크, 1941년 쌀, 목탄, 석유, 1942년 소금, 된장, 간장, 야채류까지 표나 배급제로 바뀐. (遠山茂樹(他 3人) (1981),『昭和史』, 岩波書店, p.240)
8) 전시통제법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 물자, 자금, 물가, 시설 등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을 한 장의 칙령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로 정부에 절대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전쟁체제의 근간을 만들려고 했다. (위의 책, p.241)

국민근로보국 협력령>에 의하면,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를 대상으로 여자 정신대가 결성되었다. 전시 하에서 여성노동의 특징은 국가 총동원령의 지상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를 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의지로 전화된 예가 의외로 많았다.⁹⁾ 국가에 대한 적극적 봉사정신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군국주의 교육과 사상통일¹⁰⁾에 의한 것이다.

1941년 진주만 공격에 대한 뉴스를 듣고 일본이 흥분했다. 개전 9일 정부는 전쟁 비협력자로 간주되는 200여명을 체포하고, 개전당일 진보적 문학자의 대량검거로 사상탄압을 강화하고 전쟁비판을 봉쇄했다.¹¹⁾ 신문, 잡지도 반전, 반군에 관계되는 모든 기사의掲載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금지시켰고, 신문은 대대적으로 열광적 전쟁분위기를 부채질했다. 쇼와 19년(1944) 4월에는 지역별 정신대 결성요강이 만들어져 6만 9,838명에 대한 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 군수산업 등 국책회사에 근무하거나 결혼한 자는 소집(召集)을 면할 수가 있었다. 유복한 가정의 딸들은 군수회사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특전을 이용하여 징용(徵用)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의 딸들은 특전을 이용할 연고도 없고 시국의 중대함을 깨닫고 스스로가 협력의욕에 불타서 소집에 응하기도 했다. 패전 후, 이들은 가치관의 급변으로 오히려 전쟁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¹²⁾ 대부분의 국민은 성전으로 생각했고, 침략전쟁으로 이해한 것은 일부 지식인층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한창 꽃이 필 무렵 사춘기 소녀의 등장은 쇼와 전쟁사의 어두운 소용돌이로 몰리기 직전 평온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모모요의 내면에 투영하여 조형하고 있다.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서정적이고 투명한 작가의 저항의지는 민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주인공 모모요는 동경에서 할머니 곁을 떠나 아버지가 일하는 낫선 땅 오우로 갔다. 오우는 1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쟁특수로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곳으로 내려오기 4, 5일 전 모모요는 고통스럽고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이샤(芸者)가 될 각오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부름은 학업을 중단하고 어려서부터 노동을 해야 했던 불행한 운명에서 이제는 인간다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품게 했다. 아버지가 근무하는 낫선 땅에서 모모요가 첫날을 맞이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잠에서 깨어난 내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굵고 위엄 있는 닭의 울음소리였다. 제법 사람과 섞여 적어도 사람이 걷는 곳을 느긋하게 걷고 있는 것같은 닭의 울음소리였다. - 아, 다른 고장에 와 있었다. (目覺めかけた私の耳に、鶏の聲が入ってきた。太い、威嚴のある鶏の聲であった。如何にも人に混って、少なくとも人の歩くところをも悠々と歩いているというやうな鶏の聲であった。-ああ、違った土地へ来ていた。13))(p.7)

9) 米田佐代子(1976), 『日本女性史』下, 新日本出版社, p.56

10) 村上信彦(1981), 『戦時の婦人労働』, 『日本の婦人問題』, 岩波書店, p.176

11) 遠山茂樹(他3人), 위의 책, p.241

12) 村上信彦(1981), 위의 책, p.169

닭울음소리에 느긋하게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고 사람들이 조선소로 일하러 간 시간, 태양 아래 주변은 역동적이고 활기에 차 있었다. 늦잠을 자고 잠자리에서 손발을 쪽 뻗으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다. 소녀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고, 뭔가 자유가 있을 것 같았다.

나가사키라고 하는 약간 특별한 시에서 태어나 거기서 도회적으로 성장해 그대로 동경으로 이주한 나는 시골을 거의 알지 못했고 이 경치를 이주 신선하게 바라보았다. 이곳에는 뭔가 자유가 있을 것처럼. (長崎という幾分特殊な市に生まれて、そこで都會的に育ち、そのまま東京へ移り住んだ私は、殆んど田舎を知らなかったので、この眺めをまるで新鮮に見た。何だかここには自由があるかのように。)(p.8)

모모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희망이 솟구쳤고 한가로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환상을 자신에게 붙여넣기 시작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소녀의 희망과는 달랐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취직을 했지만 여전히 동경에 있는 가족을 외면했다. 5엔만 송금해도 온가족이 하루 종일 부업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 무관심한 존재였다. 또한 학교에 가고자 안달했지만 그때마다 외면해버리는 아버지의 교활함에 당해내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이 원상 복귀되기를 믿었지만 꿈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슬픈 얼굴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딸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며 주의를 준다. 하지만 모모요는 세상 사람의 이목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감추며 이곳에 자유가 없다면 동경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유를 찾겠다고 다짐한다.

야! 자유를 원해하고 나는 말 그대로 간절하게 느꼈다. (…ああ、自由がほしい。と私はそのままでの言葉で渴えるように思った。 (p.57)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늦잠을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산책하며 마음껏 책을 읽는 모모요의 행동은 전쟁시국과는 상반된다. 무위도식하는 소녀의 행동은 러시아 작가 곤차로프(1812-1891)의 『오블로모프(Oblomov)』¹⁴⁾에서 「오블로모프의 무의, 무행동의 깊은 의미」¹⁵⁾와 연관이 있다. 철저히 나태하고 무기력한자의 전형인 오블로모프 주의¹⁶⁾를

13) 佐多稻子(1979),『佐多稻子全集第三卷』, 講談社 (이하, 인용문은 텍스트에 의함)

14) 러시아 작가 I. A. 곤차로프의 장편소설로 1859년에 발표되었다. 주인공 오블로모프는 매우 선량하고 높은 지성을 가졌으나, 계급제도의 왜곡으로 천성인 지성도 재능도 매몰돼 버린다. 벽지의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농노의 시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활동적인 부르주아 슈토르체의 우정과 진보적인 처녀 올가와의 사랑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파부 아가피와 조용한 삶을 마친다. (최윤락 역(2002), 『오블로모프』, 문학과 지성사, (원저 I. V. 곤차로프, 『Ivan Aleksandrovich Goncharov』)

15) 草子和子(1968),『素足の娘』<佐多稻子>-現代女流文學の魅力, 『國文學』, 學燈社, p.70

작가는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모모요는 동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아래층에 사는 치요코(千代子)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원해? 하고 물었다. 치요코는 행복하고 대답하자, 모모요는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자유를 갖고 싶어?」 이것은 어때하는 식으로 약간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자유라니?」 하지만, 세상이란 정말 거북한 걸, 자유가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그렇다고 결코 내 맘대로 하려는 게 아니야. 그렇지 만 남의 입 따위 어쩔 도리가 없어서 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 하는 규칙도 없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없어서 누구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면 나는 얼마나 기쁠까? 하고 생각해. 행복이란 자유가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자유롭지 못한 걸.

(「私は自由がほしいの?」これはどうだという風にちょっと頭を振って云った。「自由って?」
「だって、世の中って、本當に窮屈なんですもの、自由だったら、自分のしたよう出来るんだったらどんなにいいだろうと思うわ。それだって決して我儘しようっていうんじゃないのよ。だけど世間の口なんてものがなくて、娘はこ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規則もなくて、頭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人もなくて、誰でも男でも女でも、自分の望みが叶うような暮しが出来る、そんな自由があったら、私どんなに喜ばしいかしら、と思うの。幸福だって、自由があれば擱めると思うの。だって本當に不自由なんですもの。)(p.58)

이처럼 자유라는 말을 작품 전반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점은 광기시대의 도래 직전, 군국주의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겠다. 행복이란 자유가 있으면 얻을 수 있고, 남자건 여자건 자신의 소망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 현모양처와 총후(銃後)의 어머니를 요구했던 국민정신 총동원이 강요되었던 중일전쟁기중 자유의 소중함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모모요의 모습에서 군국주의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지가 오버랩 되어 민중의 공감을 얻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16) N. A. 도브롤류보프는 논문「오블로모프 기질이란 무엇인가?」(1859)에서 작품의 농노제도 비판의 意義를 논하면서 오블로모프를 오네긴 및 『현재의 영웅』의 페초린 루진등 19세기 전반 러시아문학에 등장하는 귀찮은 존재의 계보에 넣었다. 그 뒤 오블로모프 기질이라는 말은 러시아인에게는 무위도식의 대명사가 되었고, 광의의 뜻에서 전 인류적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모모요(桃代)-새로운 소녀상

작가는 『맨발의 소녀』에서 지치고 허무한 마음을 체념에 가까운 서정적 감흥으로 풀어 내고 있다. 일종의 해방감과 향일성(向日性)을 보여주는 모모요는 일본 근대문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녀상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근대 일본에서 「소녀」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여자교육의 정체기와 겹쳐진 메이지 20년대 말이다.¹⁷⁾ 부국강병으로 남자의 가치는 높아진 반면, 여자는 2류 국민으로 간주되었다. 원래 연소의 남녀전체를 이르는 말이었던 「소년」에서 여자를 격리시키는 말로서 「소녀」가 채택되었다. 당시 소녀소설은 가부장권 하에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훈담으로 발전되었고, 자연주의 부흥기에는 소녀의 미적가치가 주목을 받았다.¹⁸⁾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1871-1930)의 『少女病』(1907),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1896-1973)의 『花物語』(1916)¹⁹⁾등과 일본남성의 소녀환상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伊豆の踊子』(1926) 가 있는데, 쇼와기 소녀환상의 흐름을 리드했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도 작중에서 남성을 구원하는 소녀상을 도입했다.²⁰⁾ 그리고 쇼와 10년에는 새로운 소녀상이 세상의 통념을 깨면서 조명을 받았던 여주인공의 창조²¹⁾로서 유명한 작품은 이시자카 요지로(石坂洋次郎:1900-1986)의 『若い人』(1937. 11) 가 있고, 사타의 『맨발의 소녀』역시 일본의 근대 문학상에서 새로운 소녀상을 창조한 특징이 있다.

흔히 정신분석학적으로 성인의 정신적 착란의 원인을 유년시절의 체험에서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기의 발전 단계는 사회와의 적응관계를 나타내며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이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거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

17) 이 호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청일전쟁 때, 발간한 잡지『少年世界』(1895)이고, 「少女小説」도 만들어냈다. 메이지시대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일본가정의 천사, 즉 「현모양처(良妻賢母)」가 되기 위한 「집(家)」의 딸을 위한 교훈담으로 발전했다. (久米依子(2003), 「少女の世界-20世紀<少女小説>の行方」 『文學 6』, 岩波書店, p.107)

18) 잡지『少女世界』(창간:1906) 의 편집을 맡았던 田山花袋는 성인용소설로 『少女病』(1907) 에서 도시의 여학생에게 도취되는 중년남자의 망상을 그려 소녀의 섹슈얼리티에 끌리는 남성의 감상을 밝히고 있다. (위의 책, p. 107)

19) 『少女畫報』에 1916년에 연재, 초판은 1920년에 간행되었다. 50편이상의 단편으로 구성돼 있다. 여학교와 여행지에서 다양한 만남이 있고, 관능적 도취의 순간도 찾아오지만, 두 소녀의 교정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병, 죽음, 가난 등의 운명적인 이별이 찾아와서 순간적 조우(遭遇)로 애석하게 끝이 난다. 독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재는 8년간에 이르고 단행본은 통-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위의 쪽, p.107)

20) 『富岳百景』(1939) 에 나타난 하숙집 소녀의 순수함, 이 소녀에 대해 「이것은 인간이 살아나가는 노력에 대한 순수한 성원이다 (これは人間の生抜く努力に對しての、純粹な聲援である。)」라고 느끼고 있다.(위의 책, p. 108)

21) 中村眞一郎(昭和49年), 『この百年の小説』, 新潮社, p.95

이다. 물론 성인이 되어 회상한 어린 시절은 「환상적이고 감미로운 경향」을 띄는 것이 많다. 소년 혹은 소녀기를 다룬 문학 가운데 성인의 입장에서 묘사한 소설로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1872-1896)의 『키 재기(たけくらべ)』에서 호리 다츠오(堀辰雄:1904-1953)의 『밀회(あいびき)』(1931.12)에 이르기까지 몽환적이고도 비일상적인 것들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에 이르는 과정을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연속적인 정신사를 그린 소설을 교양소설 또는 발전소설²²⁾ 이라고 하는데, 『맨발의 소녀』도 주인공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흔히 교양소설은 주인공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을 형상화한 소설을 말하는데, 모모요는 15세가 되어 자신의 몸의 비밀을 알면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다.

깨어난 순간, 뭔가의 반사 작용처럼 나는 때마침 베개 위에서 눈이 향해진 옆과의 경계 요위에 손바닥을 펼친 정도의 붉은 것이 번져있는 것을 갑자기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중략) - 정확히 심하게 머리를 때렸을 때 눈동자가 푸른빛을 발하는 것처럼 뭔가 동공 자체가 연붉은색을 흘어놓은 것처럼 느껴졌다.(目が覺めた瞬間、何かの反射作用のように、私は、丁度枕の上から目の向けられている隣との境の襖の上に、ぱっと掌をひろげたぐらいの赤いものかじむのを見たような気がした。-(中略)-丁度、ひどく頭を打った時の瞳が青い光を發するように、何か瞳孔自身が薄紅色を散らしたように思えた。(p.30)

모모요가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소녀에서 여자로 성장하는 장면이다. 특이한 점은 몸의 중대한 변화를 밝고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신체가 정상인지 가정의약사에서 「몸이 찾아오는 연령」을 확인하고 만 13세 8개월, 자신은 표준이라고 미소 짓는 소녀의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러한 묘사는 히구치 이치요의 『키 재기』에서 미도리(美登利)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제기한 사타의 견해²³⁾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근대일본을 대표하는 교양소설에는 아마모토 유조(山本有三:1887-1974)의 『길가의 돌(路傍の石)』²⁴⁾이 있다. 그의 작품은 이상주의적 수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리얼

22) 발전소설과 교양소설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발전 소설과 교양소설을 별 구분 없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익환(1997), 「발전 및 교양소설의 연구」 『독일어문학 제7집』, p.166)

23) 사타 이네코는 히구치 이치요의 『키 재기(たけくらべ)』의 해석을 둘러싸고 새로운 학설을 밝혀, 저널 리즘이나 국문학계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미도리(美登利)가 갑자기 친구와 놀지 않고 성격이 바뀌는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초경설이 유력했다. 이 정설에 대해 사타 이네코가 미도리의 몸 팔기(身賣り)가 몰래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佐多稻子(1985), 『たけくらべ』 解釋の一つの疑問, 『月の宴』, 講談社, pp.152-153)

24) 소년의 성장사인 동시에 明治, 大正의 시대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교양소설이지만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언론통제로 위협시된 작품이다. 작가는 애석하게도 펜을 꺾고 집필을 중단 한 작품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작가는 이 작품을 계속해서 쓸 의욕을 상실했다. (中村眞一郎(1974), 『この百年の小説』, 新潮社, p.88)

리즘 수법으로 성장과정을 그린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1902-1979)의 『배꽃(梨の花)』이 있다. 냉철한 객관주의 태도로 소년이 느낀 최초의 강렬한 미적체험이 생애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카미 준(高見順)의 『我が胸の底のここには』(1945)는 소년기의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현재 자신의 정신과 심정을 기술하려는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의 주인공은 지적 미성숙, 사회적 지위의 미천함, 애정의 결핍 등으로 인한 증세가 갈등의 양상을 보이며, 주인공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춘시대와 편력시대를 거쳐 정화의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발전과 내면적 성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발전소설과 교양소설은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체험의 자아 즉 화자의 자아가 일인칭이라는 점에서 발전소설과 교양소설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소년이 아닌 소녀를 다룬 성장소설은 어떠할까? 여성도 남성도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년이 아닌 소녀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소설은 앞서 언급한 이시자카의 『若い人』(1937.11)에서 창부의 사생아로 태어난 여주인공이 전전(前戰) 사회에서 아버지의 호적이 없는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출생의 비밀을 사회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며 작문을 통해 대담하게 고백한다.²⁵⁾ 소녀에게 아버지 부재는 심각한 자아형성과 분열적 심리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맨발의 소녀』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보통의 부모자식 간에는 볼 수 없는 일종의 거리감과 망설임, 냉담함과 몰인정한 반응이 있다. 연령차가 적은 탓에 오누이 처럼 보이는 대등한 애정이 나타난다. 혈기 왕성한 아버지는 한 이불에서 나란히 잠을 자던 모모요에게 아래층에 내려가서 자라고 하자 성숙하기 시작한 자신의 여체가 아버지의 관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아버지는 나의 처녀답게 성장한 모습을 부모의 애정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몹시 거칠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채워지지 않는 젊은 남자로서의 관능은 딸의 불룩해진 생생함에서 뭔가 자극 받은 것처럼 침착함을 잃게 된 것은 아닌지, 아버지에 대해 동정하는 태도의 여성다움은 오히려 그의 뭔가를 자극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상하게 심술궂은 말을 들이대거나 하는 것은 아닐까. (父は、私の娘らしい成長ぶりを親の愛情で受け入れる余裕がなく、もっと荒荒しく感じるのではあるまいか。満たされぬ若い男としての官能は、娘のふくらんだ生々しきで、何かそそられるような落ち着きの無さとなるのではないかしら。私の、父への思

25) 私は男を知りたい。その男を通して私の父を感じたい。父の肌を、父の血の匂いを、父の浴情を-(中略)- 私は處女ではなくなる黒い一線がひかれる日は案外近いのかも知れない私の名はハツ(母の名)、私生兒江波恵子! 이러한 내용을 작문을 통해 대담하게 고백하는 아버지 부재의 주인공은 완전히 어머니와 동일화되어 자아형성의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책, p.93)

いやりの態度の女らしさは、却って彼の何かを刺戟し、それで彼は、私への妙な意地悪い言葉を突きつけたりするのではないかしら。)(p.60)

어머니 부재의 가정에서 자란 딸이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심리적 반응이 독특하다. 이러한 성의식의 발견은 소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어머니가 없는 편부슬 하에서 모모요가 성에 눈뜨는 모습은 이색적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존재가 없는 반대로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은 사춘기 소년이나 소녀의 성장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외적, 사회적 상황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향한 새로운 의식이 정신의 내면을 지향한다.

4. 진보적 성해방 의식

군국주의 탄압으로 인해 작가는 문학적 소재의 빈곤을 소녀의 성장체험에서 모색하면서 진보적 성해방을 추구한다. 계급적 의식에서 여성해방을 각성하고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성차별 문제를 부각시킨다.

쇼와 초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영향으로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赤い戀)』가 일본에 소개되었고, 한국에서도 김옥엽이 콜론타이의 연애관을 소개한바 있다.²⁶⁾ 이처럼 1920, 30년대 여성의식에 큰 변혁을 몰고 왔던 이론적 근거는 엘렌 케이(Key, Ellen)의 사상과 입센이즘, 콜론타이즘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었다. 1930년대 여성들, 특히 지식여성들은 여성의식의 큰 변혁을 겪는다.²⁷⁾ 『붉은 연애』는 콜론타이의 화제작으로 엘렌 케이 사상과 입센이즘으로 하여금 성도덕 해방의 물결이 거센 가운데, 이처럼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 내지는 새 연애, 새 사회관은 자유연애 풍조²⁸⁾를 더욱 부채질하였고, 구 시대의 정조관념을 파괴하는 크나큰 충격을 가했다. 이것은 곧 여성해방의 한계를 드러내며 1930년대 여성해방론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과 함께 이론적 바탕을 상실하면서 침체기로 돌입했다.

1934년 프로문학 붕괴 이후부터 작가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맨발의 소녀』와 같은 시기에 출판된 수필집 『女性の言葉』(1940.10)에서 여성의 연애와 결혼, 직업과 양육, 아내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여자의 사랑과 성에 관심이 분출되던 1937년에는 『女性の新戀愛論』(1937.1)에서 개방적이고 현대적 감각의 여자의 성해방을 담고 있다.

26) 김옥엽(1931), 「청산할 연애론」 『新女性』11, p.6

_____ (1932), 「씨베트의 신연애 신결혼」 『新女性』3, p.20

27) 水田珠枝(2000), 『女性解放思想の歩み』, 岩波書店, pp184-185

28) 위의 책, pp188~189

작가는 많은 여성이 혼전의 처녀상실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에 통감하고, 처녀상실도 성장을 향한 계기로 전화하는 과정이며 여자에 대한 잘못된 모델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자의 사춘기 성도 자연스런 욕구(欲求)임을 피력한다. 남성의 잘못된 시각에서 여성의 성이 동물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모요의 대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낸다.

한 번 남자를 알게 된 것은 하고 이상하게 여자를 동물적으로 취급하는 남자들의 지식에 대해 뭔가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버진이라는 것으로 해도 뭔가 지나치게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 나 자신이 처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질 않았다. (一度、男を知ったものは、などと変に女を動物的に扱ふ男たちの知識に對して、何か承服し難いものがあつたのである。ヴァージン、というものにしろ、何かあんまり品物のやうに扱われている。私は、自分がヴァージンでない、と思わなければならぬ、とすれば、それはどうしてもうなづけないうであつた。) (p.112)

남자의 눈이 여자의 육체를 보기만하면 안다는 잘못된 상식이 여자의 처녀성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반발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춘기 딸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들을 인식한다. 아버지와 생활은 오누이 관계로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살기에 어린관계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모모요는 초경을 경험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춘의 에너지가 분출하였고, 여자의 슬픔을 모른 채 성에 눈떠 갔다.

나는 햇빛을 향해 손바닥을 비추어 보았다. 가지런하게 손가락을 가볍게 떠올리듯 구부리자, 손가락 하나하나 사이로 주홍색으로 채색된 선이 생겼다. 손가락 한개한개 초차 햇빛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바닥 전체가 연분홍색으로 광을 내며 빛나 보았다. ... 아, 예쁘구나. 애처로운 듯이 손가락 사이의 선명한 피의 빛깔이 빛나는 것을 가만히 본다. (私は陽差しに向つて、掌を透かしてみた。揃えた指を軽くすくうように曲げると、指のひとつひとつの間に、紅のほかした線が出来る。指の一本一本さへ陽に透いてゆくように掌全体が薄桃色に艶をもって光って見えた。...ああ、きれいだわ。いとおしむように、指の間の鮮やかな血の色の光るのをじっと見ている。) (p.45)

손가락 사이로 비치는 선명한 연분홍색의 아름다움을 소녀는 보았고, 이때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솟구쳤다. 소녀 앞에는 나가사끼(長崎)시절 아버지의 동료였던 가와세(川瀬)를 비롯하여, 조선소 직원인 후지이(藤井), 龍岡, 미야케(三宅), 나카자토(中里) 등의 남자가 등장했다. 아버지가 가와세를 하숙집으로 데리고 온 날 저녁, 이불 하나에 3명이 잠자리에 들었던 순간까지 모모요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소녀는 자신의 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밀려들며 남자

들의 시선을 갈망하며 입술을 질게 바르고 맨발로 들판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녔다. 자신이 좋아하는 2, 3명의 남자를 마음속에 두고 자신과 비교하며, 가끔 나카자토의 아내가 되는 공상도 한다. 또한 가난한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후지이를 경멸하며 현실의 슬픔을 깨닫는다. 어느 날 아침 미야케가 지나가자,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충동적으로 골목길을 질주하는 방탕한 소녀의 마음도 분출한다.

이러한 딸의 감정을 눈치 챈 아버지는 신경을 곤두세웠고 관심조차 없는 옆방의 후지이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아내의 부정을 들추는 남자의 집요한 질투를 보인다. 모모요는 9살 때 아버지와 계모 둘만이 익살스럽게 웃음소리를 내는 광경을 목격하고²⁹⁾ 강한 질투를 느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성에 눈떠갈 무렵 두 번째 계모가 아버지의 목에 감겨 붙어서 자는 광경에서 남녀 간의 의외의 발견을 하면서 성에 눈떠간다.

그런데 조선소 직원들을 위한 <위안회 송이버섯 캐기>를 하던 날, 모모요는 버섯을 캐는 것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은 열망에 몸단장을 하느라 늦게 도착했다. 때마침 늦게 도착한 가와세를 산에서 우연히 만나 그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체적 관계로 이어진다.

「잠시 이렇게 있자」가와세는 그렇게 말하고, 내 몸을 무릎에 안았다. 내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상대가 눈치 채는 것이 싫었지만, 아무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하 4행 삭제) 나에게는 아무 감응도 없었다. 단지 저항하려는 생각도 못하고 잃어버린 의지가 있을 뿐이다. 감각적으로는 혐오스런 전율이 몸 안을 달리고 있었다. (이하 4행 삭제) 더 이상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しばらくこうしていおう」川瀬はそう云って、私の身体を膝に抱いた。私は私の身体のこまかく震えるのを相手に気づかれるのが厭だったけれど、どうしても、慄えはとまらなかった。(以下四行目削除) 私には、何の感応もなかった。ただ抵抗するなど思いも及ばぬような失われた意志があるばかりだ。感覺的には嫌悪の戦慄が見内を走っていた。彼はもう、私に言葉などかけなかった。(以下四行目削除) (p.78)

가와세는 관계 후,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남자의 거친 행위 뒤에 친절함이 있었다. 공포로 떨고 있는 나에게 「남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냉담함을 보이자, 모모요는 「내 잘못이 아니야」하고 가늘게 떨면서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려는 어른의 교활함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뒤에서 몸단장을 하는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왜 우스꽝스러운 걸까? 남자와의 첫 경험에서 교차되는 처녀의 감정이 복합되어 가와세와 둘만의 육체적 비밀이라는 것이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는 건지 알

29) 九歳になっていた私は、自分の知らぬ父をそこに見たように思って、そっと胸におさめる嫉妬を抱いた (『全集第三巻』, p.28)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의 몸에 넘쳐흐르는 「성적에너지」를 뭐라 설명하면 좋을지 몰랐다. 사랑의 감정이 없는 단한번의 육체적 관계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할 운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로부터 방에 틀어박혀 혼란스러워하던 모모요는 인간의 정신적 발전과 내면적 성장, 즉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내 몸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지금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신선한 희망과 동경마저 있다. 내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도 나에게는 여전히 비밀의 그림자가 있는 걸까? (私はいまこそ、自分の一身をどう取り扱わねばならないかを知っていた。私には、これから、誰かを愛したい、という新鮮な望みと、憧れがさえある。私に、その資格がない、と誰が云うことが出来るだろう。それでも尚、私には秘密の影があるのだろうか。) (p.146)

세상의 습속처럼 모모요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가와세와의 관계에서 순결을 잃었다는 피해의식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을 그가 알게 된 권리를 갖게 한 것만으로도 그를 증오했다. 자신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과연 누가 말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모모요를 통해 작가는 잠재된 여성의식의 변혁을 보이고 있으며, 프로작가로서 독자적인 실생활의 허무함을 여성의 성해방과 관련하여 특수한 급진성과 사상성을 통과하고 진보적인 성해방의식을 지닌 새로운 여성상을 조형했다.

이처럼 사타문학에 있어서 『맨발의 소녀』는 마르크시즘의 세계관을 절대시했던 작품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적 정신의 자유를 갈구하며 전후를 준비한 작품이다. 혼다 슈고(本多秋五)는 일본 마르크스주의 문학에 이질적인 독특한 매력³⁰⁾을 지적한바 있다. 여성의 성도 남성의 성장기와 마찬가지로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는 인간적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5. 에로틱한 갈망의 함축성

사회성이 짙은 작품을 쓸 수 없었던 프로작가들은 소재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맨발의 소녀』는 프로작가로서 전쟁반대를 외치지 못하는 내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투영돼 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암담한 상황에서 한 소녀의 성장기를

30) 本多秋五(1979), 「月報13」『佐多稻子全集十五卷』, 講談社, pp.2-3

배경으로 밝고 활기찬 성 에너지가 시대적 배경과는 대조를 이루며 에로틱한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조르주 바타이유에 의하면 단순한 성행위는 동물성으로, 성행위에서 인간의 내적정신의 탐구는 에로티시즘³¹⁾으로 분리하였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성에서 「인간의 내적 삶」³²⁾을 문제시한다. 인간은 불연속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뛰어넘고자 하는 연속성의 희구가 성행위를 통해 비유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은 다시 죽음을 뛰어넘고자 하는 생명욕을 함유한다. 시국적 정황과 개인적 문제로 퇴색되어가던 프로문 학자의 고립감, 고독감을 뛰어넘기 위한 고뇌의 그림자를 모모요의 도발적인 성행동을 통해 전환의 길을 모색하였다.

가와세와 그 일이 있고 난후, 모모요는 산에서 강을 건너려는 순간, 물에 비친 하얀 발에 돌아있는 검은 털이 묘하게 아름답게 보였고, 발바닥의 감촉에 순간적으로 전라가 되어 물을 뒤집어쓰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가와세의 하얀 발에 검은 털이 보이는 것을 나는 살짝 보았다. 이상하게 남자의 가는 발이 내겐 아름다웠다. 발바닥으로 모래와 작은 돌이 있는 물밑을 밟으면서 전라가 되어 물을 뒤집어쓰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川瀬の白い足に黒い毛の見えるのを、私はちらりと見た。妙に男のほっそりした足は私に美しかった。足の裏に、砂と小石の水底を踏みしめながら、私は眞裸になって水を浴びたい欲求を感じた。(pp.79-80)

우연히 첫 경험을 하고 돌아온 모모요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자신과 분리된 홀로선 다른 몸이 있는 착각에 빠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날이 밝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감한 아버지조차 모모요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소녀는 소설을 읽으며 어른들의 감정의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미야케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에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을 느꼈고, 연애의 공상에 빠지며 인간의 야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품었던 열정은 이내 사라졌다.

모모요는 멍하니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순간 뭔가에 꿈쩍하지 못하고 온 감정이 멍해져 버린 것인가? 왜 자신은 가와세 곁을 도망치지 못했던 말인가? 의문이 들었다. 맨발의 모모요는 애견 엘르를 데리고 숨이 찰 정도로 달리기 놀이를 하며, 마을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녔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을 보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31) 김영철, 이명희, 여지선(2002), 『문학체험과 감상』, 건국대학교 출판부, p.92

32) 위의 책, pp.92~93

히! 맨발의 아가씨가 가네 하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맨발의 아가씨 나는 맨발의 아가씨인가? 나는 단지 양말이 귀찮아서 맨발로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이 별명은 뭔가 내게 애처롭게 느껴졌다. 제멋대로 자란 거친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ホ、素足の娘がゆくぞいと囁くのを聞いた。素足のむすめ、私は素足のむすめなのか、自分では、ただ足袋がうるさくて、素足でいるのだが、それは、人におかしく見えるらしかった。この綽名は、何か私にいじらしく思われた。野育ちの、荒々しい自分の姿を、外から見るように思った。)(p.93)

맨발은 여성의 섹시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모모요는 양말이 없고 귀찮아서 맨발로 다녔다. 타인의 눈에는 야성적인 소녀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과는 달리 작가는 연민의 정을 드러낸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와세의 아내와 아기가 왔으며 그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모모요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비밀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승복할 수 없었던 이 말이 돌연 통쾌하게 느껴졌다. 오늘은 가족 앞에서 가와세만이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밀로 인해 그는 부르르 떨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말았다.

해가 바뀌어 16살이 된 소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와세에 대한 연정이 한순간에 성의 움직임으로 작용하면서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방의 매혹에 마음이 분방해졌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성의 욕정(性の欲情)에 눈떠갔고, 이러한 욕정은 만나기조차 꺼렸던 가와세에게로 향했다. 아내가 외출하고 혼자 감기로 누워있던 그의 집에 비를 피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성숙해진 몸을 보이고 싶은 욕정에 빠져들며, 대담하게 먼저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나는 눈앞의 분위기 속으로 더,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부글부글 느꼈다. 가와세의 부인이 돌아온다면 하는 것은 나의 떨리는 가슴에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죄악의 의식 따위는 조금도 작용하지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전율할 것 같은 감각뿐이다. 이러한 것을 전부 가와세 앞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자신의 꿀꺽하고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가와세에게도 들리겠지 하고 생각했다. 들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의 발바닥은 땀이 흥건히 배었다.(私は目前の雰囲気の中に、もっと、もっと、深入りしたい欲望をふつつつと感じた。川瀬の奥さんが帰ってきたら、ということは私の慄える胸にもあったけれど、それに對する罪惡の意識などは何にも働きはしなかった。何かを待っている。その戦くような感覺だけになった。私はそういうものを全部、川瀬の前にさらけ出していた。私は自分の、ごくっ、と唾をのみ込む音を聞いた。その音は川瀬にも聞えるであろう、と思った。聞えても構わない、と思うのだった。私の足の平はじっとりと汗ばんでいた。)(p.124)

에로틱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춘기 소녀의 심리를 대범하게 표출시킨다. 가와세는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하고 돌려보낸다. 소녀는 어른으로부터 우연히 성경험을 강요당하지만,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체험을 동경했고, 당황해하는 남자의 집에 찾아가서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설정은 당시 작가들이 체념이나 풍자소설로 가든지 아니면 군국주의 모럴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이 민중의 고뇌에 어필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가와세와의 육체적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오우에서의 방향을 끝내고 자유를 찾아 동경으로 향했다. 소녀의 성에 대한 자유로운 개화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학의 시험이다. 작가는 『맨발의 소녀』에서 자신을 지탱해 왔던 계급사상이라는 중심축이 빠져버린 고독감과 좌절감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이 작품을 발표한 후, 부부갈등으로 인해 1940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초청으로 조선의 각도시를 방문하였다. 1941년에는 아사히(朝日)신문사가 조직했던 전지위문에 동원되면서 통속적으로 변해갔다. 쇼와 13년(1938)에는 전쟁을 비판하는 소설이 발매금지 처분을 당했다. 특히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1907-1960)는 『麥と兵隊』(1938), 『土と兵隊』등을 간행하였고, 호리 다츠오(堀辰雄)는 『風たちぬ』(1936-38)에서 죽음에 대한 상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무렵 사타는 『호리와의 젊은 날(堀さんと若い日)』(1954)에서 「호리에 대한 깊은 우정과 배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문학적 감각에 영향을 주었다」³³⁾ 고 피력했다. 호리에 대한 아름다운 영혼의 동경이 『맨발의 소녀』의 작품에 영향³⁴⁾을 주었고, 「전쟁시대의 황폐에 대한 생생한 저항 의식이 호리와 같은 작품에도 연결이 되는 예술적 결정」³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맨발의 소녀』에 대한 히라노 겐(平野謙)의 평가를 보면 1941년경은 「스트라이크, 자본주의라는 말조차 터부시되었던 시대에 프로문학자로서 근성을 가지고, 근본적 타협도 굴복도 보이지 않았던 점」³⁶⁾ 을 파악할 수 있다. 아버지를 통해 「저런 것이 스트라이크」라는 우회적 표현과 해질 무렵 조선인 노동자 3명이 귀가하면서 부르는 알 수 없는 애절한 멜로디는 사춘기 소녀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발버둥치고 싶을 정도로 쓸쓸해져 그들의 노래를 떠나지 못하고 뒤따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인생의 적막한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조선인 인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은 처녀의 사랑과 일맥상통한다는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라노는 프로작가로서 1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인플레이를 경험한 소녀의 생리적인 자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대상황과 접목한 점에서 문학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바야시 히로코(小林裕子)는 「해방감과 향일성」이 넘치고 이상하게 밝다³⁷⁾ 고 평

33) 佐多稻子(1954), 月報13「堀さんとの若い日」『現代日本文學全集四三卷』

34) 草子和子(1968)「『素足の娘』<佐多稻子>-現代女流文學の魅力」『國文學』, 學燈社, p.72

35) 위의 책, p.72

36) たとえ挿話ふうにはあれ、資本主義とかストライキとか鈴木文治とかいう言葉づかいで、第一世界對戰後のわが國の經濟的破綻にふれることは、やはり勇氣を要することだった。(平野謙(1955), 解説『素足の娘』, 角川文庫, p.224)

가한 것을 보면, 어두운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인식이 심화되면서 에로틱한 소녀를 등장시켜,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함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미니즘의 비평을 도입한 하세가와 게이(長谷川啓)는 작가의 반시대적 정신의 의지로 평가한다.

소녀에서 여자로 성장하는 계절, 어떤 의미에서 위험으로 가득 찬 그 토록 빛나는 사춘기의 성을 여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생동감 있게 구가한 작품은 일본 근대소설 가운데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지만, 그것도 종래의 여자의 고정관념을 타파했다는 작가의 평범하지 않는 여성해방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중략) - 현모양처나 총후의 어머니가 요구되는 국가동원체제의 중일전쟁 하에서 이 정도로 자유를 최상으로 하는 처녀를 노래한 것, 그 자체가 작가의 반시대적 의지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少女から女へ成長する季節の, ある意味で危険に満ち満ちた, それだけに輝かしき思春期の性を, 女の立場からこれほど赤裸々にもずみずしく謳いあげた作品は, 日本の近代小説の中でも類をみないが, それも従來の女の固定觀念を打破したという, 作者の並々ならぬ女性解放への願望があった。-(中略)- 良妻賢母や銃後の母が要求される國家動員体制の日中戦争下にあつて, これだけ自由を至上とする娘を謳いあげることは, それ自体が作者の反時代の意志を語るものにほかならない。)37)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군국주의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식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계급적 관념과 『주홍』적 저항주체의 붕괴에 따른 일종의 해방감이며 타인과 자신을 자유롭게 바라 볼 수 있는 차원으로 한걸음 다가선다. 작가는 현재의 자기상실의 근원³⁹⁾을 유년시절의 성장과정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유년의 공간에서 현실원칙에 굴복하지 않는 상상적인 에로티시즘을 불러온다.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오우에서 모모요는 자유를 찾아 동경으로 갈 결심을 했다. 가와세와 함께 송이버섯을 캐러 건넌 강 의 철교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 후 전쟁특수로 호경기였던 오우는 점차 자본주의의 파탄에 빠졌다.

동경으로 돌아온 모모요는 자신이 원하는 안정된 직업을 찾았지만 언제나 마음은 고독했고, 자신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수선화에 비유되었다. 자신은 수선화보다는 붉은색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겉모습의 다름을 인식했다. 모모요는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누가 밝혀 주지 않을까? 동경(憧憬)하며 살았

37)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 『주홍(くれない)』을 거쳐 『유방의 슬픔(乳房の悲しみ)』과 『수목들의 신록(樹々の新緑)』까지는 세상의 상식에 반항하는 작가의 자세가 일관되고 있으며, 『맨발의 소녀』의 테마는 『수목들의 신록』에 바로 연결되는 해방감과 향일성(向日性)이 넘쳐 이상하게 밝은 점이 있다. (小林裕子(1997), 『素足の娘』・『樹々新緑』-モラルの二重性, 『佐多稻子-体験と時間』, pp.78-79)

38) 長谷川啓(1992), 『素足の娘』の虚構空間-桃代にみる性のめざめ, 『佐多稻子論』,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110

39) 가장 큰 문제는 프로문학 붕괴, 남편과의 부부갈등 문제로 남편에 대한 신뢰감 붕괴, 작가라는 직업여성으로서의 힘겨움과 생활고, 전쟁의 암울함 등을 들 수 있다.

다. 성장이란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주인공의 성장기와 자아각성에 중점을 두면서 여성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제도의 모순과 파시즘에 의해 억압받는 민중의 심리를 에로틱한 분위기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진보적 성해방 의식은 물론, 에로틱한 소녀의 갈망 속에는 작가자신을 비롯한 민중의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사타 이네코의 『맨발의 소녀』를 중심으로 소녀의 에로틱인 갈망의 함축성 이면의 자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1934년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이 해체되면서 작가들은 여러 형태의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맨발의 소녀』는 중일전쟁의 어두운 시대가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의 저항의식이 잘 담겨져 있다.

사춘기소녀 모모요는 아버지의 동료인 가와세에게 우연히 첫 경험을 강요당한다. 사춘기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청춘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욕정에 혼자 눈떠갈 무렵, 어른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가와세와의 체험이 감미롭게 되살아나며, 결국 대담하게 도발적으로 그의 집을 찾아가 성장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녀상의 설정은 군국주의적인 모럴을 강요당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던 당시로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인간적 갈망이 내재해, 군국주의에 대한 작가의 저항과 자유로운 인간의 내적 정신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작가의 진보적인 성해방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가는 당대의 다른 문학과 차별화하여 새로운 소녀상을 이미지화하여, 여성의 자의식 부족과 무지한 성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된 처녀상실만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하며 전근대적인 의식의 전환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 모모요의 심리적 변화는 작가와 공통된 면을 지니고 있는데, 프로 작가로서 민중과의 단절을 회복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해방감이 에로티시즘으로 흘렀다 하겠다. 그것은 프로작가로서 자신의 정신을 속박해온 계급적인 사상과 봉건적인 감정, 관습을 날려 버리고자 하는 작가의 강한 의지에 다름 아니다.

【參考文獻】

- 김영철, 이명희, 여지선(2002) 『문학체험과 감상』, 건국대학교 출판부, pp.92-93
- 고익환(1997), 「발전 및 교양소설의 연구」『독일어문학 제7집』, pp.167-168
- 이동하, 「서양 근대문학이 낳은 교양소설의 典範」『韓國論壇』3월호, pp.128-129
- 심영희(외2인)(2000),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 김환기(1997), 『아마모토 유조의 문학과 휴머니즘』, 역락출판사, p.31
- 최선령(2002), 「20세기 초반 교양소설(Bildungsroman)」,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佐多稻子(1976), 『佐多稻子全集第3卷』, 講談社
- 佐多稻子·Luise Rinser(1981), 「女として生きること書くこと」, 『すばる』, 集英社, p.221
- 板垣直子(1971), 『明治·大正·昭和の女流文學』, 櫻楓社, p.198
- 北川秋雄(1993), 『佐多稻子研究』, 双文出版社
- 久米依子(2003), 「少女の世界-20世紀<少女小説>の行方」『文學 6』, 岩波書店, p.107-108
- 草部和子, 『素足の娘』-佐多稻子『國文學』, 學燈社 4月号, p.63, p.70, p.72
- 小林裕子(1981), 「『素足の娘』·『樹々新緑』-モラルの二重性」『体験と時間』, 翰林書房, pp.66-81
- 遠山茂樹(他3人)(2002), 『昭和史』新版, 岩波書店, pp.240-241
- 中村眞一郎(1974), 『この百年の小説』, 新潮社, p.88, p.93, p.95
- 村上信彦(1981), 「戦時の婦人勞働」『日本の婦人問題』, 岩波書店, p.176, p.169
- 村上 龍(1978), 「月報 3 一季節と時」『佐多稻子全集第三卷』, 講談社, pp.3-4
- 長谷川啓(1992), 「『素足の娘』の虚構空間-桃代にみる性のめざめ」『佐多稻子論』,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110
- 平野謙(1975), 『昭和文學史』, 筑摩書房, pp.216-217
- 水田珠枝(2000), 『女性解放思想の歩み』, 岩波書店, pp.184-185, pp.188-189
- 米田佐代子(1972), 『近代日本女性史』下, 新日本出版社, p.56

要 旨

本稿では、佐多稲子の教養小説とも言うべき『素足の娘』を中心に、少女のエロティックな渴望の含蓄性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1934年プロレタリア作家同盟(ナルプ)が解体されて多くの作家達は轉向した。しかし『素足の娘』は中日戦争の暗い時代に置かれているプロ作家としての抵抗精神が潜んでいる。

父親の同僚である川瀬に偶然會って犯された思春期少女桃代は、秘密にしようとすることに對して反感を抱いていたが、徐々に青春のエネルギーが溢れて欲情に目覺めてゆく。少女は犯された事を忘却してひたすらその体験を甘味に思うようになって、遂に川瀬の家に訪れて成長した自分の身を見せたいという本能的な欲望で彼の前で挑發的にさらけ出している。この少女の性の目覺めや愛の捉え方は、軍國主義的なモラルを強制されて生きるしかなかった當時の人々に積極的な行動を感じさせたに違いない。この作品の背後には自由に生きたいという人間の渴望が隠されて、軍國主義に對する作家の抵抗と自由な人間の内的精神の深化が投影されていると思われる。

社會主義フェミニズムの立場で、非常に進歩的な女性の性解放意識をもって、桃代という新しい少女像をイメージ化した。更に女性の自我認識の不足と無知な性に對する觀念から處女喪失だけを問題視する性の歪曲に反發しながら、前近代的な意識の轉換を追求している。桃代の心理の動きは、作者と共通する面が見られ、プロ作家として民衆との斷絶を回復しようとする心理的な解放感がエロチシズムと現れている。プロ作家として自分の精神を束縛して來た階級的な思想、封建的な感情やしきたりを吹き飛ばそうとする強い意思が秘めている。時代の重壓によって、もう後退の兆しを見せていた中で、佐多稲子は思春期少女桃代を登場させて根本的な抵抗意思を失ってはいない事が見られ、この軍國主義のモラルに對する抵抗が當時の民衆に強くアピールできた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맨발, 자유, 정신대, 성해방, 전쟁, 군국주의, 에로틱한
갈망, 언론탄압, 모모요(桃代)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住 所 : (137-89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9-6호 301호
電 話 : (O)02-511-0217 / (H)02-574-5419, 577-4415
e-mail : aspak@ajinomoto.co.kr/whatami04@hanmail.net